

# 放火의 發生推移와 原因分析

## Study of Occurrence Tendency and Cause Analysis of Arson

김 동 현\*  
Kim, Dong-Hyun  
김 광 일\*  
Kim, Kwang Il

.....  
**Abstract**

Arson is one of the serious crime. It shows high increasing rate compared with the past, and the causes of arson are getting diversified and specialized in this modern society. In this thesis, the actual state and tendency of arson during latest 5 years have been analyzed on the basis of 'crime analysis' which is materi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ased on the above analyzed material, measures for arson in foreign countries are examined and necessary matters to counter arson in Korea are inferred.

**국문요약**

방화(arson)는 심각한 범죄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사회에 와서는 방화의 원인이 다양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자료인 '범죄분석'을 토대로 최근 5년간의 방화범죄의 실태와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방화의식구조와 방화범죄 통계결과와의 연관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외국의 방화 대응 방향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에서 방화범죄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들을 유추하였다.

.....  
**1. 서 론**

스트레스의 증가, 불황과 실직, 사회불안 심리가 가중될수록 방화나 다른 범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발생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외

환위기에 몰린 지금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불황과 실직, 물가 불안에서 오는 화풀이씩 내지는 보험사기를 노린 방화가 다른 때보다 증가할 것이다.

방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금이 전환기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 다른 국가의 방화범죄 발생건수와 비율을 볼 때 경험적

\* 인제대학교 산업안전보건학과

인 통계수치에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8%를 차지하던 방화화재가 1970년대에는 12%, 1980년대는 23%로 급증하여 1987년에는 34%를 차지하였고, 지금은 화재 발생원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또한 1951년에는 방화 또는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가 모두 5,600건이던 것이 1978년에는 174,000건으로 급증하였다. 1988년 방화건수가 전체화재건수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는 전체화재건수에 대한 40%의 방화건수를 나타내고 있고, 재산손실액 또한 27.3%에서 40.7%로 방화에 의한 재산 손실액의 차지비율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의 화재발생원인의 3위(9%)에서 2000년대에는 1위로 오를 것이라는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2, 3 참조]. 그리고, 1996년의 화재에 의한 사망자 원인을 보면 방화가 전체 589명에서 127명(21.6%)을 차지하는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은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5년간의 방화화재에 대해 경찰청자료인 범죄분석(犯罪分析)을 토대로 방화범죄의 원인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방화에 대한 의식을 실

시하여 지금까지의 방화범죄와의 연관성을 비교·검토하였다.

위의 두 분석 자료를 토대로 외국의 방화 대응 방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방화범죄에 대응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유추하였다.

## 2. 방화범죄의 원인분석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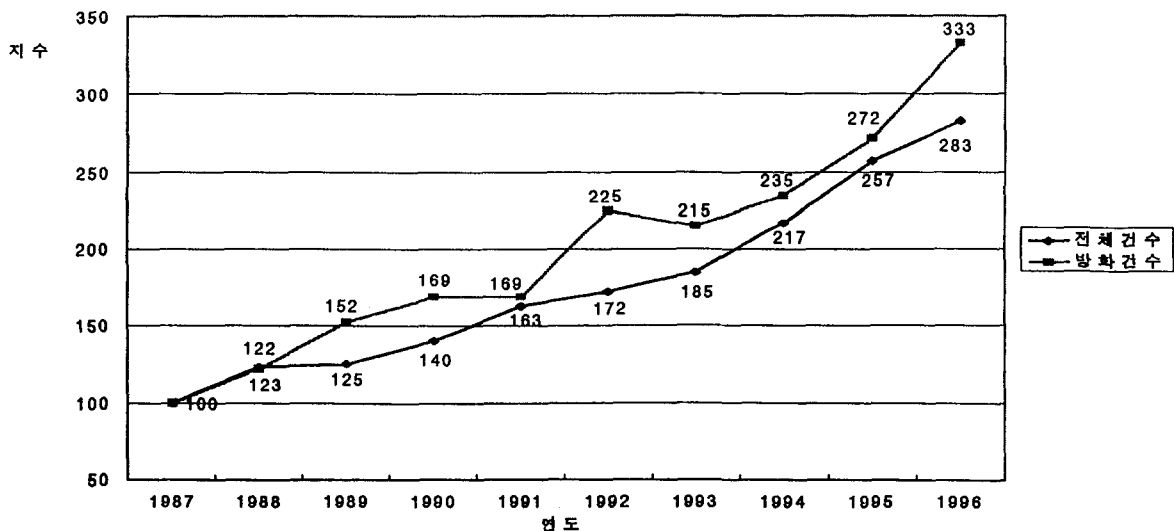
### 2.1 방화범죄의 원인분석

#### 2.1.1 범행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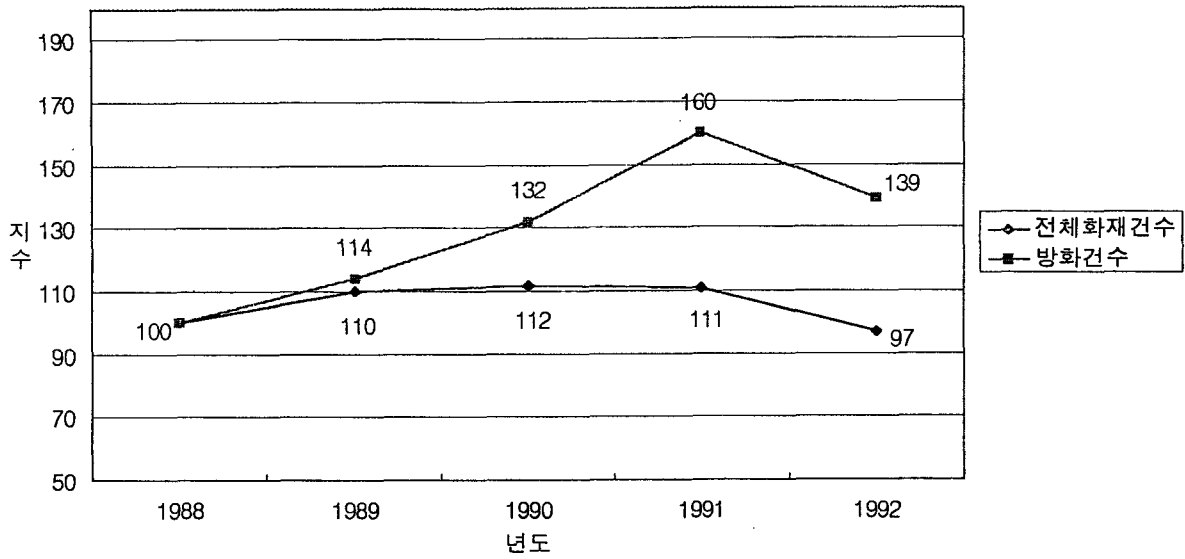
방화범죄자의 범죄원인분석에서는 내무부의 방화동기 분석과는 달리 방화 검거자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의 최근 5년간 평균 방화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경우가 196.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 현실불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타의 범위에 속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정신장애와 주취로 표 1에 나타나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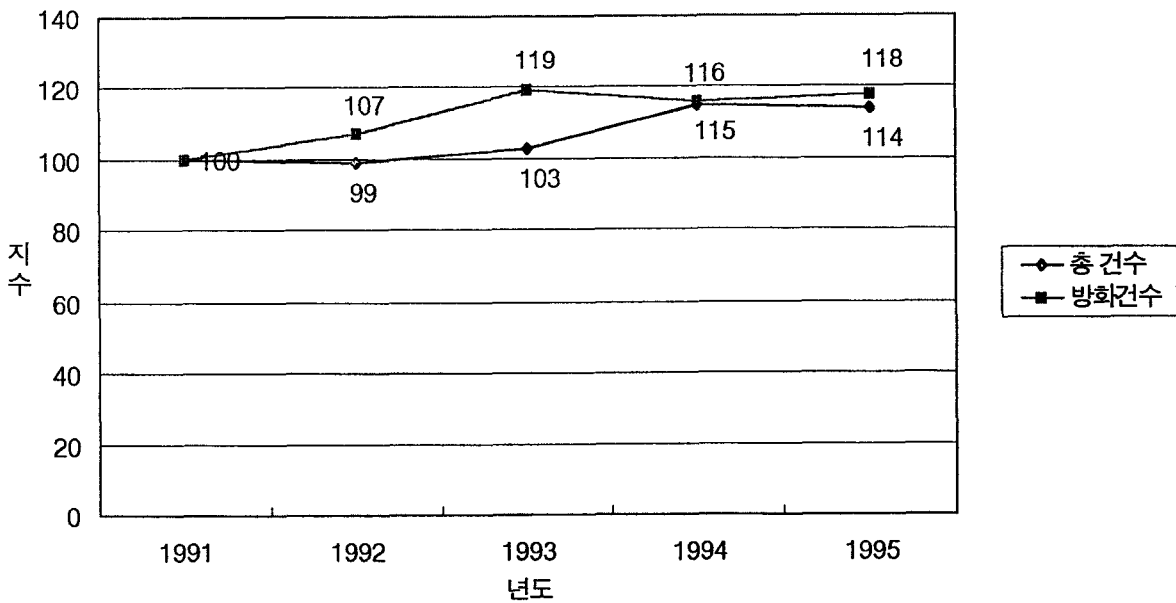
표 1에서는 정상상태와 정신장애, 주취의 상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상의 정신 상태에서 방화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취의 상태(술에 취한 상태),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국내의 최근 10년간 전체화재건수와 방화발생건수 비교.(지수 : 1987=100)



[그림 2] 5년간의 미국의 중요화재 건수추이<sup>1)</sup>. (1988년~1992년) (지수 : 198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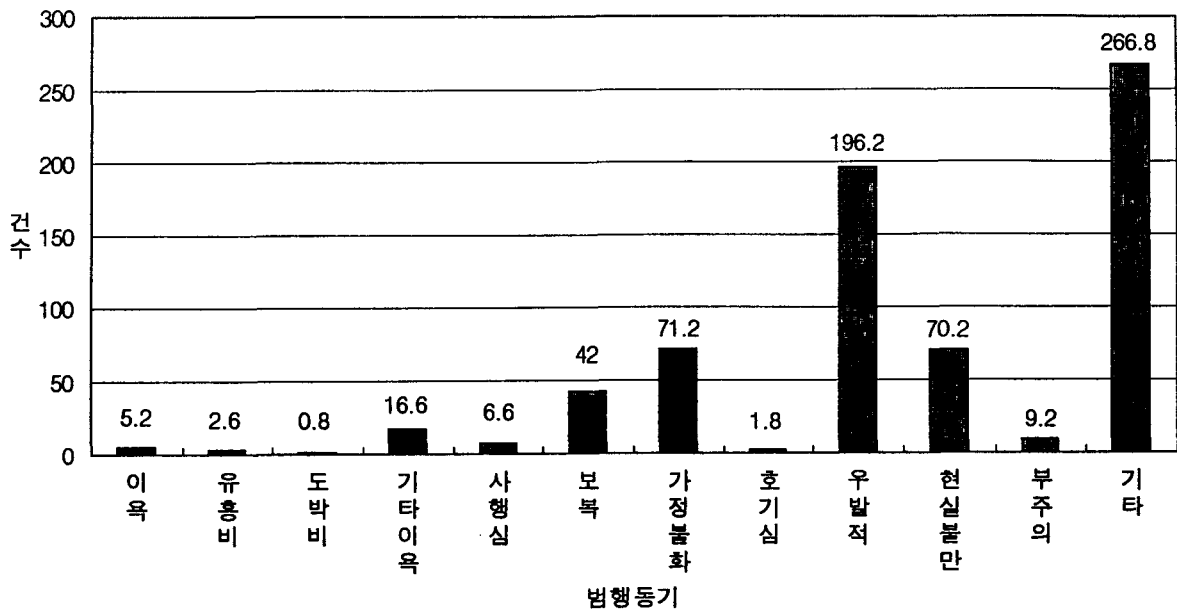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최근 5년간 화재발생 추이. (지수 : 1991=100)

[표 1] 최근 3년간 연평균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별(1994 ~ 1996).

구 분	정 상	정신장애	주 취	계
연 평 균	388	23	245	656

1) Fire Prevention 273 October 1994. pp11

중요화재란 '사상자 또는 50,000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화재' pp10



[그림 4] 최근 5년간 연평균 방화범죄자의 범행동기(5년 : 1992년~1996년).

### 2.1.2 발생시간 및 요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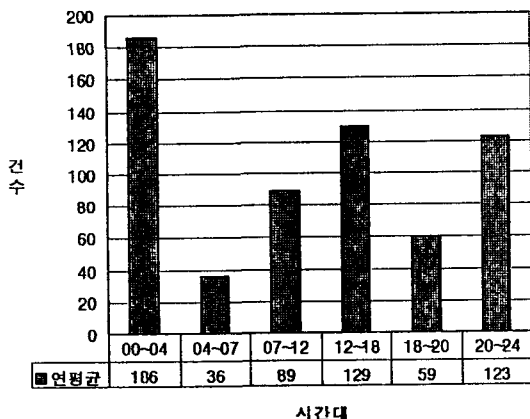
최근 5년간의(1992년~1996년)의 방화범죄의 발생시간과 요일에 따른 통계치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그림 5에 나타내어진 방화발생 시간대는 00시~04시, 12시~18시, 07시~12시, 18시~20시, 04시~07시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의 방화는 어두운 밤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 '미상'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이 차지하는 것은 방화범죄의 수법이 복잡화·지능화·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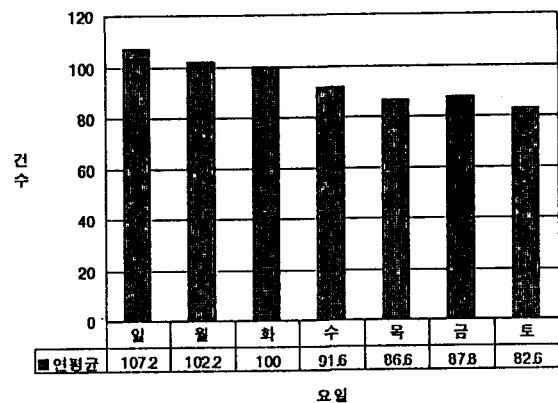
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방화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미처 뒤따르지 못하는 데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일별 방화발생의 평균을 보면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요일이 다소 다른 요일에 비해 높고, 그 다음으로 화요일 102.2건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토요일이 82.6건으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관련 몇몇 연구에서는 요일과 범죄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방화범죄의 경우 여기



[그림 5] 5년간 평균 방화발생 시간대(1992~1996년).



[그림 6] 5년간 평균 방화발생 요일 분포(1992~1996년).

서는 요일에 대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연관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sup>2)</sup>.

## 2.2 방화범죄자의 특징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범죄분석' 자료를 토대로 방화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7 참조].

- 1) 성별 : 다른 살인·강도·강간범죄에 비하여 단독범행의 비율이 높고 남성범죄자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방화는 전형적인 남성형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1992년, 1993년에는 각각 5.3%, 8.9%이던 것이 1994년에서부터는 10%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에 대한 방화 유형도 고려되어야 한다.
- 2) 학력 : 방화검거자의 평균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 이하 연평균 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24%로 많았다. 방화 범죄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방화범죄자수가 나타났다.
- 3) 연령 : 방화검거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성인 31세에서 35세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전체의 약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직업 : 최근 3년간 평균 방화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자가 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피고용인, 자영업, 일용노동자의 순으로 각각 26%, 16%, 13%를 나타내고 있다.
- 5) 생활정도 : 방화범죄자의 5년 평균 생활정도비율을 보면 '하류'가 81%, '중류'가 18%, '상류'가 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방화범죄자 환경을 같이 이해를 한다면 학력수준과 생활수준이 낮고 무직 및 육체노동자, 피고용인일수록 방화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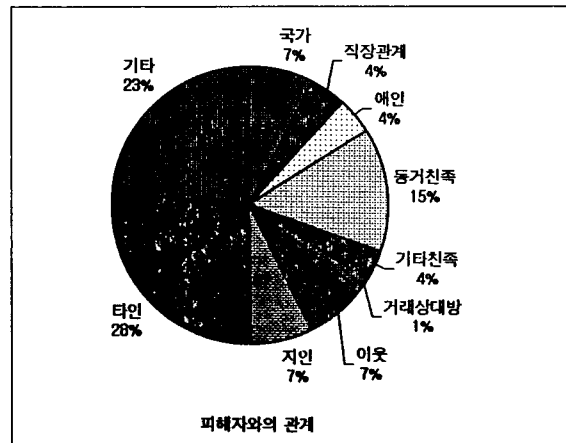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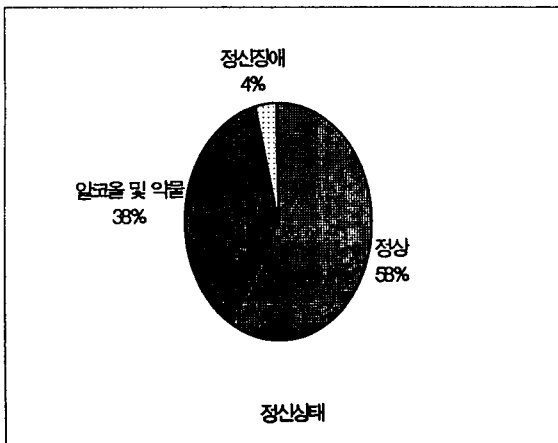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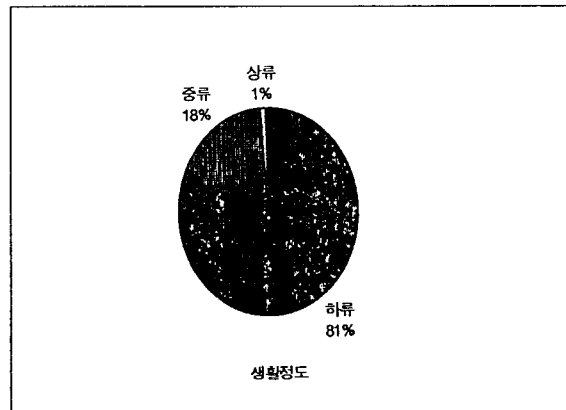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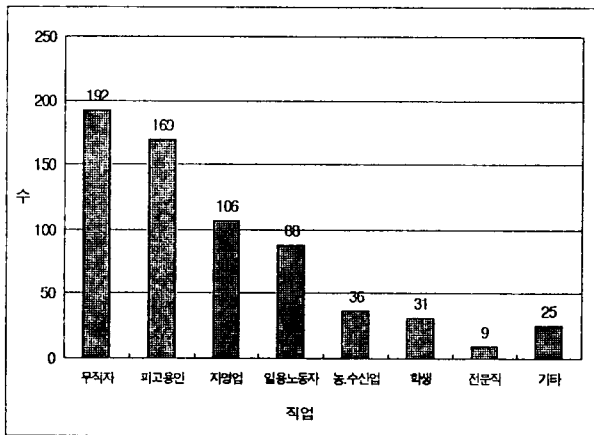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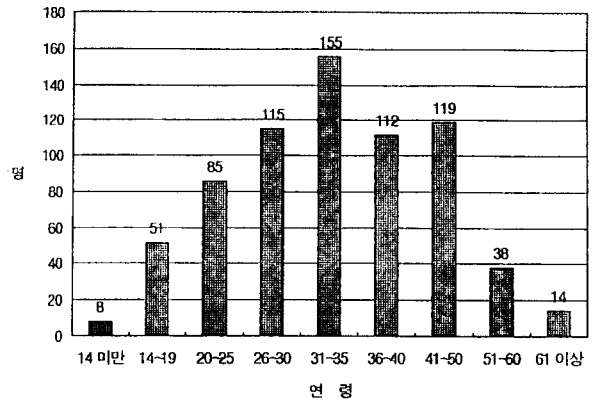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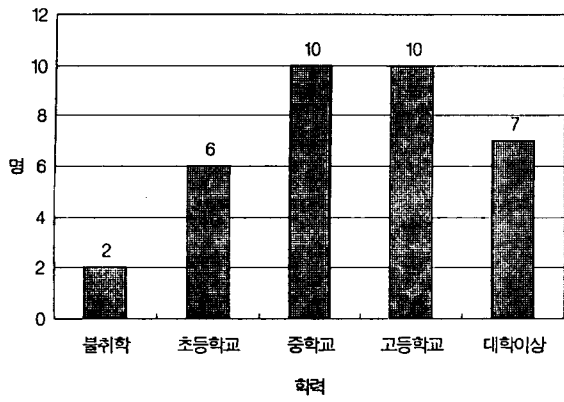
- 6) 정신상태 : 정상의 심리상태에서 방화를 한 경우는 59%, 알코올섭취로 인한 방화는 연평균 38%로 나타나고 있고 정신장애는 4%로 나타났다.
- 7) 전과횟수 : 방화검거자중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평균으로 볼 때 전체 방화자의 53%에 해당하는 전과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1994 ~ 1996년) 방화범죄자가 다시 방화를 한 경우는 1994년에는 32명, 1995년에는 20명, 1996년에는 33명으로 연평균 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방화범의 약 5%에 해당한다.
- 8) 피해자와의 관계 : 타인이 연평균 전체의 28%, 동거친족 15%, 국가 7%, 이웃 7%, 지인 7%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타인이 많은 것은 방화범죄자의 범행대상이 특정인에 대한 불만보다는 무대상(無對象)으로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결 론

방화(放火)는 범죄이다. 현대 사회가 날로 발전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인간의 삶의 형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점차 개인주의·물질만능주의·이기주의로 변하면서 '공동체'라는 의식은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방화범죄는 과거 방화동기가 단순하고 방화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던데 반해 최근의 방화범죄는 복잡화, 다양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방화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분석한 방화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고 둘째로, 위의 분석 내용과 외국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여 얻은 결론으로 우리 나라에서 방화범죄 대응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모

2) Marvin E. Wolfgan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살인범죄 중 약 65%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낮 12시 사이(52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 진식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목,금,월,화,수요일의 순으로 살인사건 발생율이 높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살인사건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김상희 외(1992),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p.53에서 재인용



[그림 7] 방화 범죄자의 특징.

색하였다.

### 1) 방화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

방화는 단독범에 의해 나타나는 남성의 전형적인 범죄이고, 무직자나 피고용인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화풀이식의 동기에 의해 많이 자행되고 있다. 방화범의 대부분은 학력과 생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방화범죄 대응 방안.

- ①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보험사기 방화범죄에 대한 법규의 마련, 형법상의 방화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 ② 행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훈련, 지식 제공 부서의 설치, 경찰청 내 방화화재 수사전담반 설치, 방화관련 연구단체나 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 ③ 연구분야에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방화범죄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치, 방화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방화범죄이론의 정립.
- ④ 교육분야에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화인(火因)조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조사기술의 과학화, 화재예방·안전교육에 대한 아동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참 고 문 헌

- 1. 경찰청, 범죄 분석, 각년도
- 2. 내무부, 화재통계년보, 각년도
- 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화재 및 방화수사기법,

1990년

- 4. 김종한, “방화”, 방재전문인 연구보고서, 1994년
- 5. 백남명, “방화! 예방할 수 있다”, 소방안전 제8권 6호
- 6. 양성환, “방화범의 심리상태”, 화재안전점검, 통권 제20호 방재 연구 노트1, 1983년
- 7. 고재유, “화재감식과 방화범수사에 관한 연구”
- 8. 편집실, “유럽, 방화증가 그 대책마련에 부심”, 위험과 보험, 통권 제13호
- 9. 최종태, “방화화재의 대응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화재학회지 통권 제 10호, 1991
- 10. 소방 200년, “전문적 조사가 필요한 분야 ‘방화’”, 56권, 1994년
- 11. 방염뉴스, “방화의 심리와 사회적 배경”, 114권호, 1993년
- 12. 근대소방, “방화의 비극을 막는 방법”, 1994년
- 13. 근대소방, “방화화재의 예방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1994년
- 14. 근대소방, “방화화재- 그 실태와 대책(동경소방청의 대책)”, 1994년
- 15. FIRE INTERNATIONAL, “Action to Stem Arson Attacks in Europe”, 1994년
- 16. FIRE PREVENTION, “Serious Arson Fire During 1992”, 1994년
- 17. FIRE PREVENTION, “The Motives for Arson”, 1994년
- 18. FIRE PREVENTION, “Counselling Young Arsonist”, 1994년
- 19. FIRE PREVENTION, “The Arsonists-and What Happened to them, 1992, 1993년
- 20. FIRE PREVENTION, “Serious Arson Fire During 1991”, 1993
- 21. FIRE ENGINEERS JOURNAL, “Are we only Catching the Incompetent Arsonist?”, 1992년
- 22. Anderson, P, “Arson - National Conference on Arson”, 1983